

-게 하다

시키거나 허락하기(사동)

일반적인 사동 표현입니다. 하나의 형태가 '시키다'와 '허락하다'를 모두 나타내며, 어느 쪽인지는 문맥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게 하다	먹다 → 먹게 하다
ㄴ 어간은 ㄴ 유지	-게 하다	만들다 → 만들게 했어요
행동하는 사람	을/를 또는 에게/한테	아이를 자게 했어요
막기	못 -게 하다	못 가게 했어요
공손하게 허락하기	-게 해 주다	쉬게 해 주세요
어휘적 사동사	먹이다, 앉히다, 재우다	아이에게 밥을 먹였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든 동사 어간에 -게 하다는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, ㄴ도 유지되며, 시제는 하다는 붙입니다. 행동하게 되는 사람에는 을/를을 쓰고, 동사가 이미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 에게/한테를 씁니다.

의미가 시키다인지 허락하단지는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: 아이를 자게 했어요 는 아이를 재운다는 뜻일 수도 있고, 늦잠을 자게 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. 한국어는 이 구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.

흔히 쓰는 동사 중에는 사동사가 어휘로 따로 있는 것도 많습니다: 먹다 → 먹이다, 앉다 → 앉히다, 자다 → 재우다. 이런 동사가 있을 때는 보통 더 직접적으로 몸을 써서 관여한다는 뜻이 됩니다.

부정형 못 -게 하다는 못 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-도록 하다는 지시할 때 쓰는 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.

■ 예문

- 1 아이를 일찍 자게 했어요.
- 2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게 하셨습니다.
- 3 동생을 좀 쉬게 해 주세요.
- 4 그 이야기가 저를 웃게 했어요.
- 5 아이들에게 직접 만들게 했어요.
- 6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.

■ 비교

시키다

시키다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게 한다는 뜻이지만, 동사가 아니라 명사를 취하며 허락이 아니라 항상 지시의 의미입니다.

공부하게 했어요. (공부하게 시켰거나 허락했다) / 공부를 시켰어요. (공부하도록 시켰다)

-도록 하다

-게 하다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한 일을 전달하고, -도록 하다는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청합니다. 뒤의 것은 전달이 아니라 지시입니다.

일찍 오게 했어요. (일찍 오게 했다) / 일찍 오도록 하세요. (일찍 오세요)

-게 되다

하다는 행위자가 주도하고, 되다는 행위자를 없앱니다. 돌을 짝으로 익혀 두면 좋습니다.

가게 했어요. (가게 시켰다) / 가게 됐어요. (가게 되었다)

■ 주의

- ✗ 아이가 일찍 자게 했어요.
- 아이를 일찍 자게 했어요.
- 행동하게 되는 사람은 하다는 목적어이므로 이/가가 아니라 을/를을 씁니다.
- ✗ 선생님이 발표를 하게 시켰어요.
- 선생님이 발표를 시켰어요.
- 시키다에는 이미 사동의 의미가 들어 있고 명사를 취합니다. -게 하다는 함께 쓰면 사동이 겹칩니다.
- ✗ 저녁을 만들게 됐어요. — '그녀에게 저녁을 만들게 했다'는 뜻으로 쓴 경우
- 저녁을 만들게 했어요.
- 되다는 상황이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.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때는 하다는 씁니다.